



연중 제3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공동체 소식]

- ▣ 이번 주간 축일
 - 01/24(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 01/25(목):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 01/26(금):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 ▣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신년 1월 정기회의
 - 일시: 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나자렛 교육관.

- ▣ 주님 봉헌 축일(2/2) 초봉헌 안내
 - 초축복 예절 일정: 2/4 (주일) 교중미사 중.
 - 봉헌초 값: 5달러/개당.
 - 내용: 제대초와 가정초를 각각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구입하실 분은 전례부에 1월 28일까지 신청).

- ▣ 캔사스대교구 “자비의 특별히년 나눔초대
 - Archbishop’s Call to Share” 안내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미 많은 신부님들이 동참하고 있고,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 2018년도 매일미사 책 추가 주문을 받습니다.
 - 기간 : 1/28 (주일)까지, 전례부원에게 주문.
 - 가격 : 60달러/년.

- ▣ 교무금 완납 및 책정에 대한 안내
 - 내용: 교무금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대들도 받을 것입니다.”(마태7,2)라고 되어 있듯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총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 이민자의 날 미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1/21)	37	217	178	437
차 주 (1/28)	416	219	166	29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중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1/21)	박태주 로마노	홍순익 마르띠노	차민서 임마누엘
		최은미 아녜스	이원준 요한
차 주 (1/28)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문예나 요안나
		김말자 세실리아	문호진 안토니오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 주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로렌스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4주일	13명	-	-
이민자의 날 미사			

연중 제3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in Kansas C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 +미사시간
 - 주 일: 11:00 AM
 - 화요일: 7:30 PM
 - 수요일: 7:30 PM
 - 목요일: 10:00 AM(교육관)
- +고해성사
 - 매 미사 30분전
- +예비자교리
 - 주일 10:00 AM

2018년 1월 21일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Third Sunday of Ordinary Time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성자를 통하여 말씀과 은총을 가득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둘러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멀리하는 이들에게, 온 삶으로 그분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 마르코. Mk 1:14-20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6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9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제 1 독 서 :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5.10

화 답 송 :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7,29-31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4-20

선량한 이들에게 외치는 회개의 목소리

오늘 독서와 복음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바로 '회개' 일 것입니다. 회개(悔改)는 통회(痛悔)와 비슷하지만 사뭇 다르기도 합니다. 통회가 지은 죄에 대해 고통스러워 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더 나아가 근본적인 결단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전 인격적 '행위'라 하였습니다.(이상에 대해 『한국 가톨릭 대사전』 참조)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
제1독서에 나오는 니네베 사람들은 다가온 멸망의 예언을 듣자 자신들의 방탕하고 교만한 삶과 결별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꾼 이들에게, 하느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니네베 사람들처럼 극악무도한 이들에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자면, 그들은 그저 성실히 살아가던 선량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마치 각자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당신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자, 망망대해를 목적 없이 표류하던 그들의 삶은 이제 '하느님'이라는 참된 진리를 향해 방향을 틀고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전의 삶과 깨끗이 결별하는 일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 자신들의 그물과 배, 심지어는 아버지마저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직업, 곧 자신이 평생 해 왔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인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가족마저 떠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그분의 자비에 맡겨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선택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직업과 가정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시듯,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삶의 일상성 속에 매몰되어 참된 진리이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성취할 수 있는 소소하고 때론 허망한 것들로 하느님을 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한 소시민으로 성실히 선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라든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단지 이러한 일상적인 삶에 안주하여 하느님께로 향한 시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작품 '첫 제자들을 부르심' 부분

신약성경의 문화 이해 '성전 파괴'

'성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기원전 587년에 있었습니다. 유다왕국과 바빌론 사이의 전투에서 유다는 패하고 그전쟁의 여파로 유다인들의 첫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유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신약성경의 시대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성전을 파괴한 나라와 그 시기는 달랐지만 이 두 사건은 하느님의 집이 파괴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건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시대의 성전 파괴는 기원후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다 전쟁의 과정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다 전쟁(66~73년)은 유다인들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누적되어 온 유다인들의 불만과 로마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있던 플로루스(64~66년)가 성전 금고를 갈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이 유다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주둔하던 로마의 군대만으로 성전을 둘러싼 갈등을 안정시키기 어렵게 되자 로마는 이스라엘에 군대를 추가로 파병합니다. 황제권을 차지하기 위해 황제가 난립하는 정치 상황과 겹쳐 로마의 군대는 70년이 돼서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때에 다시 한번 성전이 파괴

됩니다. 일부의 열혈 당원들이 마사다(Masada)로 옮겨 로마에 맞선 항쟁을 계속하지만 결국 73년 이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성전 파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복음서가 기록된 연대를 따질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공관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들은 성전 파괴 이후에, 곧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신 것은 분명 그 이전이었지만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 이미 성전이 파괴된 이후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복음인 마르코 복음서는 성전파괴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전 파괴는 유다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교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사도 2,46)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바치던 제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예식이 아니었지만 성전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초대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평화신문] '낮선 사람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캔사스 한인성당, 캔사스시티 대교구 이민자의 날 미사 참가

【캔사스】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주임 홍진 베드로 신부)는 지난 14일 캔사스시티 대교구에서 주관하는 이민자의 날 미사에 참가했다. 이날 미사는 104회 이민자의 날을 기념하여 큐어 오브 아르스(Cure of Ars) 성당에서 대교구장인 조셉 나우만 대주교가 집전했으며, 눈이 오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대교구 내의 버마인, 베트남인, 이탈리아인, 한국인 등 소수 민족 공동체에서 많은 신자가 참석했다. 나우만 대주교는 강론에 앞서 불우이웃을 돕고 교구의 복음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기금모금운동인 '나눔의 소명 (Call to Share)'에 대해 소개했으며, 강론에서 성가정이 위험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한 것처럼 많은 가족들이 위험을 피해 이주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입국하여 아직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확보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구제방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1월 4일 미사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장점과 문화가 사회에서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천주교 신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국의 언어와 영어로 신자들의 기도를 바쳤으며, 버마인 공동체의 성가가 영어 성가와 어우러져 미사를 더 풍성하게 했다. 미사 후에는 각 나라별로 준비한 음식을 나누었는데, 한인공동체에서는 이우석 프란치스코 회장 부부가 떡과 한과를 준비해 미사에 참석하신 다른 공동체 신자들과 친교를 나누었다. 특히 이번 미사는 때때로 캔사스 한인성당에 와서 미사를 집전해 준 토니 렉타이 신부가 함께해 한인신자들에게 친숙한 미사가 되었다.



캔사스시티 대교구 이민자의 날 미사 후 캔사스 한인성당 신자들이 토니 렉타이 신부와 함께 했다.

기사/사진 제공: 박태주 로마노